로컬플러스

군산 은파호수공원 새단장 완료

군산시가 은파호수공원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대대적인 일제정비를 추진을 통해 상춘객 맞이에 나섰다.

벚꽃 개화시기를 앞두고 군산의 대표 관광지인 은파호수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광관지 이용편익 제고를 위해 지난 2월부터 공원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음악분수의 대대적인 보수와 물빛다리 도색 및 야간 경관 조명의 보수를 시행하여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화장실, 수변산책로, 가로등, 도로 시설물 등에 대한 정비도 완료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8일-9일 사전투표소 운영

군산시는 오는 8일부터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27개 읍면동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 참여가 어려운 선거인이 부재자 신고 등 별도의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유권자의 투표편의 제공을 통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김진권 자치행정국장은 "선거인이면 누구나 사전투표기간 동안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쌀전업농 익산연합회, 영농발대식

한국쌀전업농 익산시연합회 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는 최근 올해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영농발대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관내 전업농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농업 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희성 연합회장은"농촌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들의 노고와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에 감사드린다."며"금년에도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농업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규제개혁 중점 계획 마련

공직사회 전반 공감대 확산, 시민 · 상공인 체감 현장행정 강화 등

군산시는 김양원 부시장 주재로 규제개혁위원 및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5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5년 군산시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2016년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규제개혁 기타의견 수렴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시는 2015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이뤄냈다.

군산시 공설시장 운영관리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예치금 조항 삭제와 농어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관리조례 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정비로 시민 체감도 향상 및 농어민 소득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또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의 규제에 막혀 기업애로가 발생하던 시점에 시행령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들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군산일반 산업단지내 한 기업이 공장부지 확보에 난항을 겪자 군산시는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고시를 통해 기업 애로해소를 통한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기업애로 해소사례 뿐만 아니라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창업 규제개혁 정책인 푸드트럭 창업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전북도에서는 최초로 은파관광지내 2개소에 푸드트럭 운영을 지원하는 등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2016년 군산시 규제개혁 중점 추진계획은 지난해 규제개혁의 추진의 연장선으로 더욱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군산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과거 행정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해 현장행정을 중심으로 기업의 숨은 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공직자의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통한 인·허가 행태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규제개혁 세부 추진계획의 골자는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공감대 확산 ▲규제개혁 추진 시스템 재정비 ▲시민·상공인이 체감하는 현장행정 강화 ▲기업의 미래가치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적 지원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개선 등의 중점 과제들을 담고 있다.

김양원 부시장은 "2016년도에는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개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은 물론 시민생활 속 규제 발굴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다"며 "적극적인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자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을 통해 행정행태 혁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 오늘 개막

17일까지 보석박물관서…보석 리세팅 · 가공 등 다양한 체험행사 진행

형형색색의 보석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2016년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가 4월 6일 왕궁면에 소재한 주얼팰리스와 보석박물관에서 개막한다.

(사)주얼팰리스협의회가 주최하고 전라북도, 익산시, 한국지역진흥재단이 후원하는 보석대축제는 4월 6일부터 4월17일까지 12일간 개최된다.

이번 축제에는 주얼팰리스에 입점한 60여개 업체의 화려한 보석들과 명장의 정성이 담긴 작품이 전시되며 보석 제품을 30% 특별 할인(24k, 다이아몬드 제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보석 리세팅, 보석가공 시연 및 체험,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공예과 주얼리 크리에이터 특성화사업단 운영 등 다양한 보석 체험행사가 마련되며, 익산 귀금속보석 명인전, 유네스코 세계유산 보석문화상품 특별전시와 인기투표를 진행된다.

주얼팰리스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장인의 손길로 탄생한 아름다운 보석을 감상하면서 최고의 보석 제품을 특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행사장 주위의 활짝 핀 벚꽃 길과 보석테마관광지, 백제역사유적지구 등도 함께 즐기면 즐거운 추억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내유일의 귀금속보석판매센터인 주얼팰리스는 매년 봄, 가을에 한 차례씩 보석대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유)바다향, 중국 화준그룹과 조미김 400만불 수출 계약 체결

군산시는 서수농공단지에 소재한 (유)바다향(대표 금기홍)과 중국 화준그룹(대표 주넨시)이 조미김 총 400만불의 수출협상을 통한 1차분 100만불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중국 화준그룹 주넨시(朱念喜) 회장일행이 무역 및 경제 교류 확대 협의 및 생산기업체 시찰을 위한 방문 시 문동신 군산시장과 면담을 통해 이뤄낸 결과물이다.

또한 화준그룹은 아시아 최대식품 전시회인 '2016 상하이 SIAL CHINA'(5.5. ~7. 상하이 국제엑스포센터)에 군산시 제품 홍보를 위한 전시공간을 별도로 확보했다.

화준그룹은 부스 임대비, 인테리어비 등을 제공하고 전시물품 및 홍보물 등은 군산 수산물가공업체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서를 통해 중국 수입업체의 주도하에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 발굴과 동시에 수출로 이어지는 전기를 마련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김 가공산업은 조미김·스낵김 등 가공식품 개발로 국내외 소비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와 수출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 유망상품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FTA를 활용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산 수산물의 수출확대 전략으로 김 가공산업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화준그룹은 1999년에 창업해 2조2천억원 규모의 물류·금융·식품유통 전문그룹으로 산동성 지모시에 한국상품 총본부를 만들기 위해 국제무역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또 2015년 7월 중국 개별기업 최초로 보세사업 인준을 취득한데 이어, 최근에는 보세무역, 유통사업에 진출해 온·오프라인 유통 루트를 완비하고 중국내 한국 직구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군산=문정곤 기자

익산 · 김제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지난 4일 오전 10시경 제97주년 익산 4.4만세운동, 김제만경장터 3.1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만세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기념식으로 익산 4.4만세기념공원, 김제 만경읍 능제수변공원내에서 개최됐다.

익산 4.4만세운동은 1919년 4월 4일 일본인의 대교농장 근처 장터인 남부시장에서 오산면 남전리 남전교회 최대진 목사와 도남학교 문용기 선생이 주도해 펼쳐졌다. 이날 일본 헌병들의 총칼에 문용기, 박영문, 장경춘, 박도현, 서정만, 이충규 열사가 순절했다. 순국한 열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익산은 이날 행사에 유관 기관장 및 시민 지도자 150여명이 참석해 헌화 및 결의문 낭독, 만세삼창으로 익산 4.4만세 운동의 거룩한 정신과 순국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만경 3.1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한 김제 만경장터 만세운동기념행사는 이건식 김제 시장을 비롯해 이우실 전북서부보훈지청장, 만세운동 유공자 후손, 유관기관·단체, 만경 중·고 학생들과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선열의 뜻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익산=장양원기자

중국 옌타이시, '군산사무소' 개설 예정

군산시 자매도시인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臺)시(시장 장용샤; 張永霞)가 올 상반기 '군산시무소'를 개설할 예정으로 양 도시간 교류증진의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옌타이시 '군산시무소'는 지난해 11월 옌타이시 외사판공실 건물 내에 '군산시무소'를 개소한 이후 보다 활발한 상호교류를 위해 성사됐다.

옌타이시는 5일 군산시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사무소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이달 말 연대시장이 직접 군산을 방문해 사무소 설치에 관한 제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군산시와 옌타이시는 지난 1994년 11월 자매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래 문화·예술·체육·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하며 우의를 다져왔다.

특히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아 지난 2014년 10월 경제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최근 경제분야까지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시민기자단 22일까지 모집

군산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하고 생생한 소식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도시재생 시민기자단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군산시와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및 군산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활동기간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다.

시민기자단은 군산시 월명동, 영화동 일원의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취재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군산의 숨은 명소와 인물, 이야기 등 도시재생과 관련한 자원을 널리 소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기자단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시재생과 관련한 생생한 기사와 읽을거리를 전달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 수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